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12월 27일(금)
..(음력 12월 2일)..

Пятница
27 декабря 2019г.
№ 50(116867)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사진으로 회상하는 2019년

▲ 올해는 사할린에서 첫 <아시아 아이들>유·청소년 국제동계스포츠대회, 3·1 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새고려신문 70주년 기념행사 등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이예식기자 사진첩에서)

친애하는 여러분!

찬란하고, 멋지며, 즐거운 명절인 새해와 성탄절을 맞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할린 주민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의 축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축하의 릴레이는 러시아 다른 지역으로 계속 전달됩니다.

우리의 특수성은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대규모 산업기획에서, 주민들을 위한 중요한 시작 사업에서, 사할린주를 비롯해 전국적 문제들의 많은 실질적인 해결책에서 그렇습니다.

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주민들은 실제로 크나큰 수선수범을 삶에 실현시킬 수 있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앞으로 보건, 교육, 교통, 건설, 주택 공동단지를 비롯한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우리 함께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내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에게 강건함과 행복과 가정의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할린 주지사 **발레리 리마렌코**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От всей души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замечательными, светлыми и радостными праздниками – Новым годом и Рождеством! Мы –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тречаем их одними из первых в стране. По сути – даем старт новогодним торжествам. И передаем эту праздничную эстафету дальше,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Это наша особенность – быть первыми. В круп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ах. В важных для людей начинаниях. В решении многих актуальных не только для области, но и для всей страны вопросов.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делом доказали, что способны воплотить в жизнь самые масштабные инициативы. И, я уверен, вместе мы обязательно решим задачи, которые поставили перед собой: 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образовании, транспортной сфере, строительстве,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и других отраслях. У нас все получится!

Искренне желаю вам,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счастья и семейного благополучия! С праздником! С Новым годом!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존경하는 애독자 여러분!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2019년은 저희에게 정말 뜻깊은 해였습니다. 한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3.1 민족 만세운동 100주년, 일제에 의한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80주년, 그리고 저희 본지 새고려신문 70주년 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도 개최되어 동포들은 민족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문을 구독하시는 모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독자들이 있기에서 우리 신문이 존재합니다. 종이 신문 독자가 수가 많지 않지만 인터넷으로 보는 독자가 많아져 한 편으로 뿌듯합니다.

2019년에도 후원 차원에서 광고를 하는 <라직스>치과병원(원장 전용식)과 <사흐콤>회사(사장 이용남), 급하실 때 언제나 손을 잡아주시는 <가가린>호텔 정해성·권행자 사장과 <1+2>회사 이용길 사장, 꾸준히 저희 신문을 후원하시는 설운창 박사, 전 사할린한국 교육원장 장원창, 서재길 교수, 장기간 저희 신문 카페 블럭을 운영하시는 정성훈 감독, 지난 가을부터 후원에 나선 기미양 아리랑학회 이사, 나눔성형외과 노승만 선생, 정나리 선생, 이정훈 교수, 지철호 변호사 등 따뜻한 후원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신문 70주년 기념행사 개최에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전채련 어르신, 사할린주미술박물관 하이 올라 선인 전문가, 사할린주향토박물관 진 율리아 선인 연구원, KBS 라디오 <한민족방송> 황형선 피디·김민

정 작가,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 박순옥), <사흐인스트로이>회사 (대표이사 권운호), 샤머니즘 박물관(관장 양종승), 미래혁신전략 연구소(소장 서원열), <자라>회사(사장 엄주상), <그린 솔류시온>회사(사장 안화자), <폴리그란드>회사 (대표이사 서 엠게니), <스틸>미용실(사장 김정순), <세바스티안 스튜디오>미용실(사장 배 나체즈다), <피라미다>회사(사장 이체인), <스트로이마르케트>회사(사장 오정태), <컴퓨터 살롱>회사(사장 최 안드레이), 송창진 개인 기업인, <림코>회사(사장 림종환)에 채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분들의 지속적인 응원과 지원 덕분에 유즈노 사할린스크와 네벨스크에서 <새고려신문 70주년/우리들에 대해>전시회를, 우글레고르스크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서울곳, 사할린에 가다>사할린 동포 위령제를,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국에서 거주하는 독자를 대상으로 문학상 공모를 멋지게 개최할 수 있었고 신문 역사에 대한 라디오 방송프로 제작도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한민족지 유지입니다. 2020년에도 최선을 다해 이 방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단 독자 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희들과 계속 인연을 가지고 많이 뒷받침해 주십시오.

경자년에는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안녕, 행운을 빕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고려신문사 배 빅토리아 사장

2019년은 러시아 극장의 해

사할린 조선극장 박 빠벨 배우를 회상하다

'극장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버지는 연극을 좋아하셨다'

올해는 '극장의 해'다. 이와 관련해 사할린주에서도 수많은 행사가 개최되었다. 그중 하나가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보관부와 사할린 역사 문서 보관소가 마련한 <극장은 착한 세계에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무대>란 역사 다큐 이동 전시회(관련 기사 본지 2019년 3월 29일 호 게재. -기자주)다. 출판물의 대부분은 문서보관소의 소장물이다. 전시회는 3월 말 체호브센터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사할린 조선극장(1948-1959)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 전시회를 티비 방송을 통해 우연히 보게 된 한 여인에게서 본사로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어제 티비 방송을 봤는데 조선극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시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이 극장 배우셨거든요."

이렇게 조선극장의 배우 박 빠벨 티모페예위츠의 손녀 나탈리아와 첫 인사를 나누었다. 나중에 그녀의 어머니 스웨틀라나 파블로브나를 댁을 방문해 박 빠벨의 딸 베네라, 셋째 딸 스웨틀라나, 그리고 손녀 나탈리아와도 만났다.

1922년생 박 빠벨은 연해주에서 태어났다. 1937년에 그의 가족도 모든 극동지역 고려인들의 운명처럼 스탈린 령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했다. 가족은 우즈베키

스탄에서 살게 되었다. 여기에서 박 빠벨은 림 타치아나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대조국 전쟁 시 공연 브리гада 아티스트로 활동했다. 다만 전선이 러시아를 벗어났을 때 그의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강제이주된 민족으로 고려인들은 전선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1951년에 배우 빠벨은 아내와 딸딸을 데리고 사할린으로 왔다. 그는 소련 문화부 장관 지시로 사할린 조선극장에 파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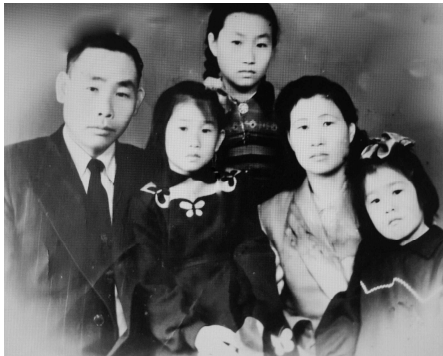
연극에서 주로 주역을 맡은 박 빠벨은 정말 극장과 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극장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티비를 볼 때 두 가지만 보셨습니다. 하나는 티비에서 연극을 상영할 때, 또 다른 하나는 축구, 또는 테니스 경기였습니다."라고 스웨틀라나 파블로브나가 회상했다.

그는 극장 배우로서 활동할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았다고 한다. 박 빠벨은 타쉬켄트 문화대학에서 3년간 연극 전문교육을 받았다. 그가 맡은 주역 중에서는 <흥부와 놀부>에서 흥부의 역을, <량반전>극에서는 권춘보 역으로 관객들의 인기를 많이 얻기도 했다고



배우 박 빠벨



한다. 특히 <흥부와 놀부>의 첫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관객들이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던 것은 흥부의 맨발이었다. 순간 극장에서는 첫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고 한다. 좋은 연기자로서 상도 타고, 표창장도 받고 그중에는 소련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표창장도 있다.

스웨틀라나는 아버지가 극장에서 활약한 지 60여년이 지났으므로 기자와 얘기를 나누는 동안 자매인 베네라와 얘기 도중 "아버지가 그래요?", "너는 어려서 잘 몰랐지.", "처음 듣는 얘기가."라는 말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는 가족들의 얼굴 표정이 밝게 피는 것이 아름다웠다.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라고 자매들은 말했다.

딸들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키가 크고(178, 거의 180) 잘 생기고 인기도 많았으며 연기도 잘 했고, 노래실력도 있었고, 악기도 잘 다루었고 게다가 손재주도 있었다고 했다.

사할린에 처음 왔을 때 가족은 아버지의 동료인 리한수 배우와 이웃해 살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아버지가 따로 거의 혼자 집을 지었다고 했다.

"극장에서 배우로서 활동하시던 아버지는 당 간부들의 명령으로 사할린 조선극장이 문을 닫게 되자 상당히 마음이 아파하셨다. 너무나 괴로워서 아버지가 아끼는 바이올린을 부시고는 '더 이상 바이올린 연주를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다짐을 아버지는 끝까지 지켰다. 극장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버지는 연극을 좋아하셨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조선극장 지원서를 보내 배우로 합격 통지서까지 받으셨다."고 스웨틀라나는 회상하며 말했다.

1950년대 초반 박 빠벨의 가족이 사할린에 처음 왔을 때 가족은 셋이었는데 1960년에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지역으로 갈 물렵 가족 수는 여섯으로 늘어나 있었다. 이곳 사할린에서 딸 둘을 그리고

막내 아들이 생겼다. 박 빠벨의 아내 타치아나는 타쉬켄트 지역에서 살때는 트라베스티(소년)역할을 맡다가 나중에 사할린 조선극장에서 배우 의상을 만들었다. 그러다 크즐오르다 지역으로 이주해서 가족을 돌보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 순회공연이 너무 많아 빠벨은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다. 비로소 연기를 할 수 있게 되어 배우 빠벨은 만족한 생활을 이어갔다. 문제는 아내 타치아나에게 기후가 맞지 않았다. 특히 여름이 너무 더워 (+45도) 견디지 못했다. 게다가 남편이 인기와 외모로 못 여성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 타치아나에게는 고민이 많아졌다. 그의 셋째 딸도 기후가 맞지 않아서 크즐오르다에서 2-3년을 살다가 사할린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사할린에서 빠벨은 배우로서의 활동을 벗어나 리고 건설장에서 일하며 자녀가 네티니 돈벌이를 해야 했기 때문에 먼 벌목장으로 작업을 하러 가

도 했다. 그러다 반년이 지나 발이 뿌러지는 사고를 당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목발 짚고 오는 일도 있었다.

1960년대 말 빠벨은 친구의 초청으로 조선 라디오방송국에 입사했다. 리한수 배우가 그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일했었는데 모스크바로 파견되자 그 자리에 빠벨을 추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뉴스 본문을 배우처럼 읽다 보니 첫 인터뷰에서 떨어졌는데 다음 다시 초대해 입사하게 되었다. 그래도 완전히 아나운서처럼 본문을 읽지는 못했으나 그의 연기력은 계속 발휘되었다. 청취자들에게는 이미 그의 목소리가 매우 익숙해져 있었다.

그리고 1982년에 폐암 진단을 받고 병에 시달리다 은퇴 후, 배우 박 빠벨은 1988년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인 배우 박 빠벨에 대해 딸들은 말한다.

"아버지는 예절이 무엇인지, 여자가 어떻게 해야 여성스러운지 가르치셨다. 그리고 가족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셨다."고.

배우 박 빠벨 티모페예위츠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역사와 운명이 국가 정치에 많이 달려 있다. 특히 평범하고 소박한 꿈을 꾸는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전 사할린 세관에서 근무하는 박 빠벨의 손녀 나탈리아에게서 연락이 왔다. "기자님, 우리 세관에 지금 사할린 극장들에 대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찾았던 그 전시회요."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사할린 주민들, 인터넷을 통해 2020년 인구조사 실시

2020년 사할린 주에서 인구조사를 준비 중이다. 사할린 주민들은 인터넷으로 <국가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 작성 양식을 따라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양식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자원봉사자들이 돕는다.

지역 정부에 따르면 이 주제로 세르게이 바이다코프 부위원장이 주재한 관련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했다. 인구 조사는 내년 10월 실시할 예정이며, 그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된다. 러시아 통계청 직원들은 이미 주민들의 주택 주소 목록과 지도상 실제 위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했다.

바이다코프 주정부 부수상은 "적발된 모든 위반 사항은 주택 감독원이 기록해야 하며, 지방 정부는 이에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불어 인구 조사의 조건들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사할린 및 쿠릴 주민들은 공공서비스의 통합 포털을 이용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할린 전 지역 아파트와 주택 순회 방문 조사 시 총 1,100명 정도의 조사원이 실시하도록 하고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해당 구역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각 지방 인구 조사에 2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예정으로 이는 2014년 소치 올림픽과 맞먹는 가장 큰 자원봉사 기획이다.

인구 조사의 첫 결과는 2020년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2022년에 밝혀진다.

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пройти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2020 через интернет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готовится к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2020.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ней можно через интернет, достаточно заполнить специальную анкету через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и». А тем, у кого возникнут сложности, будут помогать волонтеры.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области, эту тему обсудили на совещании профильной комисси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зампреда Сергея Байдакова. Перепись пройдет в октябр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ей предшествует серьезная подготовка. Сотрудники Росстата уже проверили 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соответствие списков адресов домов местам их фактического расположения на картах.

— Все выявленные нарушения, если они есть, теперь должна зафиксировать жилищная инспекция, а муниципальным властям необходимо их оперативно устранить, — отметил Байдаков. — Также важно проинформировать жителей об условиях прохождения перепис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ереписной кампании можно будет тремя способами. С помощью Единого портал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предложат заполнить данные на себя и членов семьи. Также данные будут собирать во время поквартирного и подомового обхода — всег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около 1100 переписчиков. Желающи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заполнить анкету могут сделать это на стационарных участках.

В целом по стране в переписи задействуют более 20 тысяч добровольцев. Это станет самым масштабным волонтерским проектом, соизмеримым только с Олимпийскими играми в Сочи 2014 года.

Первые итоги переписи планируется подвести уже в декабре 2020 года, а окончательные — появятся в 2022 году.

사할린 동물원, 눈으로 조형물 만들기에 사할린의 주민들의 참가 요청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에게 즐거운 경연 참가를 권한다.

주 동물원 측은 눈 조형물 만들기 아마추어 경연 참가에 주민들을 초청한다.

동물원 측 홍보실에 따르면 눈 조형물 제작 경연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19년 12월 30일까지 자신의 팀을 구성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 서류는 이메일 info@sakhalinzoo.ru 로 접수한다.

1월 3일 동물원 구역 내에서 13시 45분에 모든 참가자들을 기다린다. 경연 우승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조각가들에게는 다과를 제공한다. 주최 측은 참가자의 연령과 팀별 참가자의 수에 제한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성인, 학생, 유치원생들도 참가가 가능하다.

조형물 제작에는 눈뿐 아니라 얼음을 준비해 만들 수도 있다. 단, 이때 참가자들은 각각의 도구들을 이용해야 한다. 동물원 측에서는 도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8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문예콩쿠르 특별상

사할린에서 타향살이 80년, 우리 가족 역사의 운명이 되었다

전채련 (1931년생)

(전호의 계속)

또 반년 후 '카네보'라는 구역으로 이주시키는 바람에 학교도 벌써 네 번째로 전학하여 나는 성적이 낮아졌습니다. 하루는 오빠가 저의 교복을 또 사가지고 왔습니다. 고마워하며 입어보니 모양이 해군 옷처럼 되어 있었는데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옷은 명절 때만 입어보고 입지 않았습니다. 제가 3학년 때 일본인들은 한인들을 또 '하마토르'라는 바닷가의 작은 마을로 이주시켜 물과 전기도 없고, 낡은 화장실도 집 밖에 있는 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저녁때는 석유로 램프에 불을 켜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일본인들은 길 건너 좋은 사택에 살며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시내 목욕탕에 가면 일본인들은 다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일본 건축가와 정치인들이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비행장 건설을 위한 자재들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석탄장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우리 오빠는 한인 동포들과 같이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오빠의 오른 발등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큰 병원도 없고 구급차도 없었고 전쟁시기라 약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큰집 큰 오빠가 같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큰집 큰 오빠는 사촌동생을 업고 큰 시내 병원까지 갔으나 병원에도 약이 없다고 하여 오빠의 오른 발등은 절반이 갈라지고 두 번째 발가락은 떨어져 없진 상태여서 부어올라 피가 많이 나왔습니다. 주사도 없이 수술을 하여 참느라 오빠가 큰 고생을 했습니다. 시내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약이 없으니 빨리 완쾌하지 못하여 병원장이 복해도(훗카이도) 온천으로 보냈습니다. 상점에는 식량도,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오빠가 일본 훗카이도 온천에서 치료하는 동안 어머니는 시내 한인 집들에 다니면서 안남미를 구하여 절구통에서 가루로 만들어 시루떡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빠가 직장에서 돈을 못 받으니 어머니가 몇 달간 고생을 하시다가 마침내 몸이 아파서 우클레고르스크의 큰 병원에 입원 하셨습니다. 집에서는 내가 밥을 짓고 5살인 동생 수문을 돌보아 주며 학교에 갈 때는 둘이서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학교로 가서 선생님께 사연을 말하고 내 옆에 앉아 놀게 했습니다. 점심때는 동생 수문이와 밥을 같이 먹고 오후에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 교실과 복도를 청소하고 또 한 시간 공부를 더 한 후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두 달 후 오빠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시기라 거기에서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날씨가 나쁠 때면 한기가 난다며 아프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버스를 타고 나는 어머니가 입원하고 계신 병원까지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는 아픈 다리에 주사를 맞았는데도 아프시다고 하시더니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발목이 아프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4학년이 된 가을 무렵, 일본인들이 하마토르 한인 가족을 또 브이코브 탄광으로 이주시켜 탄광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우리 가족은 4구 구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빠는 다리가 완쾌되지 않아서 시내 수도관을 수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점점 심해져 식량 배급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자와 나물들을 넣어서 밥을 해 먹고 일요일에는 뒷산에 감자를 심으러 다녔습니다. 학교에서는 오전에 두 시간만 공부하고 우리들은 빵이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같이 돌밭에 가서 당근밭, 감자밭을 매고, 올 때는 목이 말라 동구리라는 풀의 줄기를 뜯어 내어 숙물을 빨며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매일 저녁때는 큰 포대를 가지고 이웃 아저씨들을 따라 뒷산으로 올라가서 후끼라는 풀을 뜯어 통에 담아 집으로 가져오면 어머니가 그것을 삶아 껌질을 벗겨 잘게 썰어서 밥을 할 때 소금을 좀 넣고 여러가지 콩과 같이 넣어서 밥을 차려주면 우리는 배가 고파 잘 먹었습니다. 하루는 청어를 말린 것을 상점에서 배급해주어 받아 보니 속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어서 기분이 상했지만 씻어서 말려두었는데 며칠 후 적의 비행기가 날아와 시내 천 명이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에 폭탄을 던져 '굉' 하는 소리가 나더니 모두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일본 감독들이 큰 소리로 땅굴 안으

로 피하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우리집에 오빠는 일하러 갔고 어머니와 동생을 데리고 이웃 사람들을 따라 땅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은 오빠가 어머니와 우리를 보고 자기는 일하러 가야 하니 어머니와 동생들은 먹을 것을 좀 가지고 빨리 뒷산으로 피난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는 발이 아파서 집 안에 남을테니 이웃집 사람들과 같이 너희 둘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마루 밑에 짚으로 만든 일본 다다미를 걷어 사방에 벽을 세우고 이불과 요 등을 둘러싸 어머니를 안전하게 계시도록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준비해 놓은 도시락 대신 대두콩 볶은 것, 물, 청어 말린 것을 가지고 동생 수문의 손목을 붙잡고 이웃 친구들과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낮에 비행기 소리가 나면 풀 속으로 숨었다가 나와서 배가 고프니 도시락 주머니를 열어 밀가루 떡을 말린 것도 물에 적셔가며 먹고, 대두콩 볶은 것을 먹으면서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담임 선생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전쟁이 끝난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가니 새로 들어온 남자 교원이 있는데 첫날 우리들 앞에서 말하기를 자기는 일본 본토 요카렌 군부에서 복무하였는데 부모들이 여기 사할린에 있으니 전쟁이 끝나 밀전을 타고 항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벌써 러시아 군인들이 보여서 숨어가며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반 6학년은 3분의1이 한인 학생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교원은 자기들의 나라가 전쟁에 져서 그런지 학생들이 조금만 실수해도 반 학생들을 다 세워놓고 두꺼운 책으로 한 사람씩 머리 위를 탁탁 세게 치며 분풀이를 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큰 운동장에서 두 반의 학생들에게 빨리 뛰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어느 학생이 잘 뛰지 못해 천천히 뛰자 다음 학생들을 두 줄로 마주세워놓고 서로 뺨을 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뺨을 때렸습니다. 며칠 후 집에 가는 길에 어디서인지 한인들의 목소리로 '꽤나 칭칭나네!' 하며 냄비 뚜껑, 양재기 같은 것을 망치와 나무토막 등으로 두드리며 고향에 간다는 기분으로 춤을 추며 행렬을 하는 아저씨들을 보니 한국 고향에서 강제 동원으로 끌려오신 분들 같았습니다. 그 후 러시아 군인들을 보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그들을 보니 얼굴이 붉고 큰 키에다가 코는 아주 크고 끝이 뾰족하여 무섭게 보여서 도망쳤습니다.

돌린스크시에 계시는 큰 아버지가 해방이 되었으니 우리 가족과 큰아버지의 큰 아들 가족들이 '빨리, 우리가 사는 돌린스크시로 이사 오라! 전쟁이 끝났으니 다같이 가자!' 하는 연락을 주어 며칠 후, 밤에 우리는 돌린스크시로 가서 큰집 옆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일본학교에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돌린스크의 학교에서는 벌써 러시아어를 많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인 친구들에게 러시아어를 쓴 공책을 하루 빌려와서 밤 늦게까지 보고, 쓰고 했습니다. 오빠도 내가 러시아어를 쓰는 것을 보고 러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한국인을 강제 동원으로 끌고 왔다가 전쟁이 끝났으니, 고향 한국으로 돌려보내주어야 원칙인데 자기들만 소문도 없이 일본 본토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후 한인들은 매일 밤마다 라디오를 틀고 한국의 소식을 알고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무소식이고 북조선에서 사람들이 사할린에 파견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북조선 영사관에 이태식이라는 사람이 사할린에 와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북조선에 가면 김일성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해서 그 말을 믿고 남녀 젊은 청년들이 북조선으로 떠났는데 그 후 그 중 일부 사람들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러시아 국적을 가진 가족들이 1년 후 사할린으로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아저씨들은 한국에서는 무소식이니 북조선으로 가면 한국에 빨리 갈 수 있겠지 하시며 북조선으로 떠나셨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우리가 멀리 떠나거나 잠이 든 새에 / 최하림

우리가 멀리 떠나거나 잠이 든 새에
안개는 물 위로 떠올라 강을
덮고 마을을 덮는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별판 쪽으로 창이
하나 둘 열리고
나라들이 들어서고
저녁열차가 덜컹덜컹 언덕 아래로
쇠바퀴를 굴리며 지나간다 다시
안 보이는 별판 쪽으로
창이 열리고
나라들이 들어서고
십일월과 십이월이 황사와도 같이
시계를 가리며 간다 모든 시간의
그림자들이 줄지어 간다 지상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했다는
허섭스레기 같은 소문들이 가득해지고
시청 앞 광장에는 오늘 밤도 촛불 시위가
계속된다 붉은 띠를 두른 전사들이
무어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외친다
우리가 멀리 떠나거나 잠이 든 새에.....
안개가 물 위로 떠올라 강을 덮고
마을을 덮는 새에.....

"시간이 흐르고야 말았습니다. 흐르고 흘러 결국 2019년 역시 흘러보내야 합니다. 사실 흐르고 말 것도 없어요. 누가 뭐래도 시간은 거침없이 흐르고야 말 테니. 이 쓴살같이 흐르는 시간을 늦출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운명이란 어찌 보면 굉장히 짧은 생애가 아닐런지. 좋아하는 사람과 키스하고 포옹하고 살기에도 벽찰 만큼 바쁜 게 바로 이 인생이 아닐까요? 아, 얘기가 또 이상하게 흘러가네, 다시 시간, 시간 속으로! 2020년, 그레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망상의 늪으로 다가가 이 역시 또 다른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안개는 주구장창 물 위로 떠오르겠지만.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고해성사를 하듯 서로 올 한 해 못다한 미련들을 각자의 술잔과 함께 털어내야 하잖아요. 저도 친한 지인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동료 작가의 닭볶음탕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닭볶음탕에 팔죽, 그리고 와인 이렇게. 다들 운동선수들처럼 순식간에 해치우시더라고요. 저야 뭐 올 한 해 계획 중의 하나가 다이어트였으니, 저는 조금만 먹은 걸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Удачи! Спасибо!"



서울에서 허진원, 2019.12.25

올 초부터 사할린 기업들 생선과 해산물 62만8천 톤 획득

연말연시를 맞아 사할린주 수산청이 수산 기업들의 활동을 종결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12월 15일 생선과 해산물 어획의 총 생산량은 628197톤에 달했다. 올 연말까지 최대 어획량은 평균 어획량인 650,670톤에 가까운 수치다. 대체적으로 해산물 어획의 절반 이상이 명태로 약 346,673톤에 달했고 두 번째로 연송어류가 76,410톤, 태평양 청어잡이는 주내 어로인들이 43,948톤 넘게 잡았다. 심해 생선은 총 21,020,272톤을 어획했고 대구는 약 19,575톤, 가자미가 12,015톤, 임연수(취노래미)는 7,495톤이 넘었다. 어획된 심해 해산물 중 가장 많이 잡힌 것은 왕게(킹크랩)로 올 초부터 22,212톤이 잡혔고 가리비는 10,750톤, 해초류는 예전과 같이 다시마를 채취했다. 쿠릴 수역과 타타르 해협에서는 미역 5829,37톤을 채취했고 얼음이 형성된 사할린 북부에서는 나와가 어획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나와가의 어획은 올 초부터 9486,52톤에 달했다.

(사할린주 수산청 보도자료에서)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нимание!!!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слушателей на 2020 учебный год.

Начало записи: с 15 января 2020 г.
Начало занятий: 10 февраля 2020 год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50-56-96

Также всю интересующую Вас информацию вы можете найти на сайте нашего «Центра» : <http://www.sakhalinedu.com>

제 69 회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공고

1. 목적

가. 재외동포,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

나. 한국어 능력을 측정,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

2. 대상 :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3. 일시 : 2020. 4. 12(일) 09:30~16:00

가. TOPIK I : 오전 / TOPIK II : 오후

나. 입실시간 : 매 교시 30분 전

구분	교시	영역	입실 시간	시작	종료	시험 시간(분)
TOPIK I	1교시	듣기 읽기	09:10	09:40	11:20	100
2교시	읽기	15:00	15:10	16:20	70	

4. 장소 및 시행처 : 사할린한국교육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일시 : 2020. 1.9 ~ 2020. 1.30

나. 장소 :

교부장소	주소	전화
사할린 한국교육원	유즈노사할린스크 미라 83-A	505696

6. 응시 수수료 : 500루블, 사진 2매(3*4)

7. 시험결과 발표 : 2020. 5 이후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острове Сахалин К 80-летию начала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на Южный Сахалин

Дин Юлия, ст.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49)

Закон «О всеобщей мобилизации» (Закон № 55), вступивший в силу в 1938 г., включал 50 статей и дополнений, которые регулировали условия и ход мобилизаци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этим законом подданные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и могли привлекаться к трудовой повинности и службе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местах по законам военного времен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ом императора за № 316 от 4 мая 1938 г. «Об исполнении Закона о всеобщей мобилизации в Кореи, Тайване и Карафуто» с сентября 1939 г. Закон «О всеобщей мобилизации» распространял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лоний. Согласно официальному отчету японских властей, всего из Кореи в Японию было мобилизовано 422 262 корейца.

Японские власти на Карафуто также стали проводить принудительную трудовую мобилизацию, но особый статус Карафуто играл в данном процессе немалую ро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прежнему поощряло приезд корейцев в виде вербовки по желанию, вербовки через родственников и знакомых, а план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был выполнен только частично (см. таблицу). В большинстве принудительно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корейцев отправляли работать на шахтах Карафуто.

Количество принудительно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для работы в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Карафуто:

Год вербовки	Плановое количество	Фактическое количество
1939	0	3 301
1940	8 500	2 605
1941	1 200	1 451
1942	6 500	5 945
1943	3 300	2 811
1944	0	0
1945	0	0
Итого	19 500	16 113

Стоит также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тот факт, что корейским рабочим платили зарплату (как уже говорилось, более высокую, чем ту, которую они могли получать в Кореи), но эти деньги шли в основном на сберегательные вклады почтового отделения банка г. Тоёхары. Регистрационные книги с записями вкладов частью были потеряны во время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частью захвачены Красной Армией в качестве трофеев. После войны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так и не смогли получить свои сбережения, и вопрос этот ждет справедливого решения до сих пор.

Таким образом, за период с 1931 г. (5880 человек) численность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росла и к 1944 году составила 26825 человек (18213 мужчин и 7552 женщин). Как мы видим, количество женщин существенно уступало количеству мужчин, что было следствием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семьи которых оставались на родине.

Однако, принудительная мобилизация не только уве-



Главная штольня шахты в п. Быков

личивала корейское население Карафуто. Из-за обстановки, царившей в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и наканун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11 августа 1944 г. япо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О немедленном перемещении шахтеров и ресурсов Карафуто и Кусиро». В результате этого решения были закрыты 14 из 26 шахт на западном побережье Карафуто, а японские и корейские рабочие этих шахт были перемещены на Японские острова. Этим рабочих насчитывалось от 6 до 10 тыс. человек.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из них было 3100 человек.

Главной причиной этого перемещения были финансовые трудности и транспортные проблемы. Условия перемещения, которое в историографии получило название «повторная вербовка», были очень тяжелыми. Рабочим сообщили о перемещении за 3 дня до отъезда, который состоялся 19 августа. Условия работы на японских шахтах были гораздо хуже, чем на Карафуто, было несколько смертельных случаев. Однако главным последствием «повторной вербовки» стала разлука с семьями, оставшимися на Карафуто. Некоторое количество завербованных смогли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 1945 г. вернуться на остров, однако для большинства возвращение оказалось невозможным из-за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и недостатка необходимой информации.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корейцев, подвергшихся «повторной вербовке» умерли рано из-за последствий тяжелой работы на шахтах в Японии.

После поражения главной союзницы Японии – гитлеровской Германии – в мае 1945 г. положение Японии становится катастрофическим. Объявление Советским Союзом войны 8 августа, а также атомные бомбардировки г. Хиросима и Нагасаки 6 и 9 август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о япон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не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должения войны. 15 августа по радио был передан рескрипт императора Хирохито о принятии условий Потсдам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2 сентября 1945 г. представители япо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дписали на борту американского крейсера «Миссури» Акт о безоговорочной капитуляции, закончи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Вторую мировую войну.

В связи с началом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япон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Карафуто провела частичную эвакуацию граждан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женщин и детей) из южных районов Карафуто, в основном из г. Отомари (Корсаков), Рудака (Анива), Хонто (Невельск). Эвакуированные выезжали на Хоккайдо, причем их число превысило 70 тыс. человек. Несомненно, что среди эвакуированных были и корейцы, но численность последних подсчитать не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возможным.

На момент вступления Красной Армии на территорию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его население составляло около 370 тыс. человек. В Отомари и Тойохара скопилось более 30 тыс. беженцев, причем часть из них ушла в горы. Всего беженцев насчитывалось 64 тыс. человек. Корейцев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было 23 498 человек, из них 15 356 мужчин и 8 142 женщин.

Таков был итог периода, имевший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в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территорию губернаторства Карафуто в составе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альной империи шла миграция корейского этниче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с юга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сновная миграция эта была двух видов – приезд корейцев для работы в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острова (которая отличалась по сравнению с Кореей более высокими заработками) и принудительная мобилизац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ами военного времени. После перехода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оветскому Союзу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менно эти трудовые мигранты и принудительно мобилизованные рабочие составят основное ядро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ый месяц — 95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Чэнду состоялся южнокорейско-китайско-японский бизнес-саммит

24 декабря в китайском городе Чэнду состоялся южнокорейско-китайско-японский бизнес-саммит. Подо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водятся в рамках саммитов лидеров трёх стран. Нынешнее стало седьмым по счёту, и в нё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60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рупнейших компаний РК, Китая и Японии. В соста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и японской делегаций вошли по 150 человек, китайской - 300 человек.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ремьер госсовета Китая Ли Кэцян и японский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Синдзо Абэ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на открытии бизнес-саммита.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рейской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й палаты Пак Ён Ман в своей речи указал, что данная встреча имеет важнейшее значение, давая возможность восстановить партнёр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условиях геополитических разногласий и укрепления протекционизма в торговле. Он предложил сосредоточить усилия на скорейшем заключении трёхстороннего соглашения о всестороннем региональ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партнёрстве (RCEP). По итогам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о принято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В нём участники бизнес-саммита озвучили призыв к правительствам РК, Китая и Японии продолжать усилия по скорейшему заключению торговых соглашений. Кроме того,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важность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целях обеспечения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роста и совместных усилий в решении проблемы старения общества и улучшении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Лидеры РК и Японии выразили надежду на улучшение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улучшились, необходим «откровенный диалог».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йся 24 декабря в китайском городе Чэнду встречи с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Японии Синдзо Абэ.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РК и Япония являются ближайшими соседями в географическом, историческом и культурном аспектах. Хотя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отношения обострились, две страны не могут быть разделены. Синдзо Абэ согласился со свои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коллегой, добавив, что в деле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необходимо также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трёхсторонн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участием США. Коснувшись обостр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Мун Чжэ И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Япония должна вернуться к ситуации, которая была до 1 июля этого года. Тогда Токио ужесточил контроль за экспортом сырья в РК. Он предложил провести консультации на рабочем уровне. Коснувшись проблемы компенсаций корейским жертвам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лидеры двух стран подтвердили наличие разногласий, но согласились с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решения всех вопросов путём диалога. Встреча продолжалась порядка 50 минут. Это был первый южнокорейско-японский саммит за последние 15 месяцев. Предыдущий состоялся в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Нью-Йорке в кулуарах сессии Генассамблеи ООН.

В 2019 году умерли более 3 тыс. южнокорейцев, не дождавшихся встречи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на Севере

По данны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 января по ноябрь этого года скончались 3.147 южнокорейце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как члены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и подавших заявки на воссоединение со своими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из 133.365 южнокорейце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с 1988 года, в живых осталось 52.997 человек. Возраст 63,4% из них превышает 80 лет, что подчёркивает важность данной гуманитарной проблемы.

Сеульские концерты группы BTS привлекли 180 тыс.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Сеульские концерты известн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K-POP группы BTS дал экономический эффект, по объёму не уступающий зимним Олимпийским играм в Пхёнчхане.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докладе, подготовленном группой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рё. 26,27 и 29 октября на стадионе Чамсил в Сеуле проходили концерты под названием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Эксперты подсчитали, что прямой и косвен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эффект дан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составил примерно 922 млрд 900 млн вон или 793 млн долларов. Концерт в столице посмотрели 23 тыс. иностранцев. Если учитывать сопровождавших их в поездке в РК, то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приехавших в страну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составило 100 тыс. человек. Из-за концерта всего в страну прибыли порядка 180 тыс. иностранце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за три концерта BTS удалось достичь 67% от показателя Олимпиады в Пхёнчхане. Финансовая ценность данных посещений оценивается в 1 трлн вон или примерно 900 млн долларов.

(RKI)

В Сеуле прошла серия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ённых России

Целая серия разноплан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ённых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и повышению уровня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двух стран, прошла в среду и четверг в Сеуле.

В среду, 18 декабря, состоялась первая в своём роде встреч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усскоязычной общины Сеула с руководством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ы.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тало хороше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общения, а также возможностью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рассказать напрямую о своих проблемах мэрии Сеула.

В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Екатерина Попова,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мэром Сеула от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а также членом Сов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и мэрии Сеула, отметила значительное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енности русскоязычного населения как в столице Южной Кореи, так и в стране в целом. Согласно статистике на ноябрь 2019 года, число россиян в Корею превысило 64 тысячи, граждан Узбекистана - более 76 тысяч. А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совокупное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которые говорят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в Корею превышает несколько сотен тысяч. "Мы приехали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но у нас схожие проблемы, нам тяжело дается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мы, проживая в Корею, используем русский для получ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В Сеуле многое делается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Здесь работают 25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семь "глобал-центров" для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шесть "вилладж-центров", Сеульский центр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Центр по защите прав женщин. Но ни в одном из них нет русскоговорящего сотрудника, хотя в каждом округе Сеула проживают выходцы из русскоговорящих стран", - сказала Екатерина Попова, попросив руководство мэрии Сеула расширить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поддержку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Она добавила, что сайт города Сеула функционирует на пяти языках ООН, но при этом был забыт еще один язык организации - русский.

В состоявшейся затем беседе русскоязычные иностранцы смогли напрямую задать волнующие их вопросы. А их оказалось немало - от приема детей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детсады и проблем с визами до поощрения работы бизнеса и активизации культурно-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эрии Сеула ответили на некоторые из вопросов в ходе встречи, пообещав затем дать письменные ответы на те, на которые не хватило времени.

В этот же день 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е прошло другое мероприятие, также напрямую связанное с

Россией.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ось роуд-шоу "Россия 2020. Евро в подарок". Оно было посвящено чемпионату Европы по футболу, часть матчей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пройдут в России. Корейцев и всех остальных гостей мероприятия ознакомили с основными туристически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а также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али, какая насыщ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ждет в РФ гостей Евро-2020.

Также прошел "6-й Русский вечер в Сеуле", который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м деловым советом (КРДС) и посо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На встрече собралось более ста человека - бизнесмены, дипломаты, политики, профессора, научные работники, студенты, журналисты и другие.

В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посол РФ в Сеул Андрей Кулик отметил, что двустороннее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РФ и РК в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растет быстрыми темпами. Два предыдущих года темпы роста товарооборота превышали 20 процентов, а по итогам на сентябрь 2019 года показатель вырос еще на семь процент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Южная Корея стала для России вторым крупнейшим торговым партнером в АТР, обогнав Японию и уступая лишь Китаю", - подчеркнул российский посол, выразив надежду на дальнейшее плодотворное развитие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н также напомнил, что в 2020 году будет отмечаться 30-летний юбилей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Сеулом, а к этой дате будет приурочен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торжеств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редседатель КРДС Пак Чон Хо также вспомнил о приближающемся юбилее, пообещав, что их совет будет делать все возможное для сближения России, Кореи и народов двух стран.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с в Корею жде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интерес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связанных с Россией", - сказал Пак, приведя в качестве примера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е на 2020 год гастроли балет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из РФ, концерты и заход в Пусан учебного парусного судна "Седов".

Участников "6-го Русского вечера в Сеуле" также порадовали своими выступлениями российские и корейские деятели искусства. Отрадно было, что своим талантом блеснули среди прочих и корейские артисты, которые в свое время закончили музыкальные академии в РФ и с тех пор не теряют связи со "второй родиной".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едложил кандидатуру Чон Сэ Гюна на пост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редложил на пост следующег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кандидатуру бывшего спикер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Чон Сэ Гюна.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сообщил об этом 17 декабря на брифинге. Эксперты полагают, что выбор Чон Сэ Гюна связан со стремлением обновить атмосферу в госструктурах и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работу по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Чон Сэ Гюн считается специалистом по вопросам экономики и человеком, способным на новом посту обеспечить большее единств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парламента. Кроме того, перестановка связана также с планами нынешнего глав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Ли Нак Ёна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намеченных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Чон Сэ Гюн окончил юрид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рё, а затем 17 лет работал в корпорации SsangYong Group. При бывшем президенте Но Мун Хёне он занимал пост министр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энергетики, был спикеро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20-го созыва, имея опыт в налаживан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правящими и оппозиционными силами.

KBS World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в РК в ноябре выросло на 7,9%

В ноябре РК посетило 1 млн 456 тыс. 429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Это на 7,9%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ообщила 23 декабря Национа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туризма Кореи.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туристов пришлось на граждан Китая - 505.369 человек, Японии - 258.522, Тайвань - 102.241, США - 82.238, Гонконг - 58.600 человек. В случае с китайскими туристами показатель вырос на 25%, с гостями из Тайваня - на 16%. Количество туристов из стран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выросло на 8,1%. Японцев стало на 13,8% меньше. Между тем, число южнокорейцев, побывавших за рубежом, сократилось на 9% до 2 млн 90 тыс. человек.

KBS World

Блюда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помогают снизить вес и уровень холестерина

Ежедневное употребление блюд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хни хансик помогает снизить вес и уровень холестерин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среду в Корей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айонов, это подтвердили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с участием 54-х южнокорейцев, страдающих избыточным весом. Они были разделены на три группы, одна из которых в течение четырёх недель употребляла блюда североамериканской кухни, вторая соблюдала диету, рекомендованную органам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ША, а третья питалась блюдами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Оказалось, что у тех, кто питался блюдами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уровень холестерина снизился в среднем на 9,5%.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казали также, что уровень холестерина у тех, кто употреблял любые виды американской пищи, повышался. Выяснилось, что хансик помогает предотвратить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е заболевания и похудеть, а богатая комбинация ферментированных блюд улучшает работу кишечника.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опубликованы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научном журнале Nutrients, а в начал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в European Journal of Nutrition.

KBS World

«Доступные поликли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учили почетные знаки

Высокой оценкой медицинского качества отмечены поликлиники №2 и №4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бластной кожно-венерологический диспансер, районные больницы Александровска-Сахалинского,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а, Южно-Курильска, Ноглик и Смирных.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фасады этих учреждений украсит специальный почетный знак.

Вручение знаков народного признания состоялось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учали награды председатели советов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при медици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ях.

– Лучшими стремятся стать все лечебно-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области,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шук. – Но не все пока дотягивают до статуса «Доступная поликлиника». Знак народного признания, который мы вручаем сегодня, дается за особые заслуги. Учреждения, отмеченные им, с легкостью могут его лишиться, если опустят планку качества и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Напомним, ранее с инициативой о проведении народ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за медучреждения, которым могут присвоить статус «Доступная поликлиника» выступили «Серебряные волонтеры». Предложение поддерж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прос проводился через сервис «1-300». В нем участвовали люди, которые пользовались услугами медучреждений в течение последних двух месяцев. Оценивалась работа заведений по нескольким критериям: качество проведения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доступность услуг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и кадровая обеспеченность.

Сейчас за право называться доступными борются еще три медици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и области –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а также районные больницы Анивы и Томари.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ъявляет голосование в поддержку этих ле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Оценку качества их работы 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лагают оценить с помощью горячей линии «1-300». Голосование продлится до 30 декабря.

Более 500 детей собрала губернаторская елка

На новогодне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иехали школьники практически из все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Вместе с Дедом Морозом и Снегурочкой ребята окунулись в атмосферу новогоднего праздника с традиционным хороводом и зажжением елки.

С наступающим Новым 2020-м годом ребят поздр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Для всех нас наступает самая приятная и волнительная пора, когда в наши дома приходит особое настроение, радость ожидания добрых чудес и исполнения всех желаний! Дорогие дети, родители и учителя, желаю вам бесконечного счастья,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оптимизма и новогоднего настроения! Пусть каждый дом наполнится миром, уютом и благополучием. Здоровья, любви, процветания и успехов!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гласительные билеты на представление получили победители школьных олимпиад, отличники учебы, участники Всероссийски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фестивалей и конкурсов.

В завершение праздника все его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или сладкие подарки. В рамках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досуговой программы, которая проходила для одаренных детей в период с 22 по 24 декабря под патронатом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юные гости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посетили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и,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книги А.П.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беда» и исторический парк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ыли горнолыжный сезон

22 декабря на средней площадке лучшего горнолыжного курор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обрались сотни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честь открытия нового сезона здесь состоялся большой спортивный праздник.

Начался он с всеобщей разминки у подножия горы, а также с выступления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торые подарили собравшимся мощный заряд энергии.

– Каждый год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у открытия сезона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 поделился Андрей Владимиров, постоянный посетитель горнолыжного комплекса. – Мой первый спуск состоялся около десяти лет назад как раз на горе Большевик. После этого катался на сноуборде в других городах и даже странах, но трассы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по своему уникальны и не сравнимы с другими. Для меня они – самые любимые.

В честь праздника канатная дорога действовала в особом режиме. Все желающие в течение часа могли бесплатно подняться на среднюю и верхнюю площадки комплекса. На горе работали центры развле-

чений с логическими играми, проходил розыгрыш подарков, главным из которых стал сезонный ски-пасс.

Также на средней площадке установили «Ёлку желаний». В рамках специальной акции на ней развешали записки от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с нарушением опорно-двигательного аппарата из детского сада №28. Посетители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могли выполнить любое из желаний ребят. Все подарки отправят в детский сад и передадут детям.

В день открытия сезона заработала трасса «Запад». Вместе с другими любителями горнолыжного спорта ее опробов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Спустился полдесятка раз: погода – чудесная, склоны – хорошие, но, конечно, ждём ещё больше снега! Зарядился на открытии официального сезона на «Горном» мощной энергией и настроением на всю предстоящую рабочую неделю, – рассказал о своих впечатлениях глава региона.

Уже в ближайшие недели, отмечают в сахалинск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спорта, заработают и другие трассы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 В этом году на южном и восточном склонах мы проложили систему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оснежения. Она нужна для комфортного катания даже при малоснежных зимах и способна продлевать горнолыжный сезон, – сообщил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уренков. – Помимо этого, на восточном склоне установлено освещение. Теперь любители спорта смогут кататься здесь по будням до девяти, а по выходным до десяти часов вечера, тогда как раньше склон закрывали с наступлением сумерек.

В завершение спортивного праздника состоялся массовый костюмированный спуск с верхней площадки трассы «Запад». В нё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горнолыжников и сноубордистов,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и сказочные герои Дед Мороз и Кошечка Бессмертная. Вечером всех гостей комплекса ожидало шоу ратраков и праздничный салют.

Отметим, ране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звал туризм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отраслей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Развитие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пособствует повышению комфортности прожив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этом году острова посетили свыше 300 тысяч туристов из России и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Более 60 тысяч из них отдали предпочтение комплексу «Горный воздух».

КРП сахалинских чиновников обсудили с депутатами и общественниками

Завершилась разработка ключевых показателе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для всех член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Сегодня их представили депутатам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и участникам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Задачу повыси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рабо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ст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дин из важнейших шагов – утверждение КРП, которые призваны оценить, насколько успешно руководители справляются с возросшими требованиями. От достижения этих показателей в новом году будет зависеть уровень дохода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губернатора,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его заместителей, министров и глав районов. Эффективность работы губернатора будет оцениваться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Для все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утверждается целый перечень квартальных, годовых и проектных показателей. Но есть единый для всех критерий – уровень доверия к власти.

– Именно на том, чтобы слушать и слышать людей, нужно сосредоточить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м предстоит вывести жизнь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на принципиально новый уровень. Люди должны жить в комфортном жилье, ездить по асфальтовым дорогам, получать доступ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иметь широ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образования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дышать чистым воздухом и пить чистую воду. Ключевые показатели эффективности все это учитывают,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 примеру,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муниципалитетами, кадровая политика, обратная связь с жителями области входят в обширный круг обязанностей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губернатора Сергея Байдакова.

За демограф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будет отвечать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ергей Наумов. Ему предстоит добиться естественного прироста населения, уменьшения числа смертей от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и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х заболеваний, снижения уровня бедности. Он будет ответственным з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и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От того, насколько жители довольны вывозом мусора и другими услугами ЖКХ, капитальным ремонтом домов и дворов, будет зависе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работы зампреда Владимира Сидоренко. Повышение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островов, переселение жителей

аварийных домов, асфальтирование дорог – задачи для Сергея Олонцева. За качеством связи и внедрением цифровых платформ будет следить Вячеслав Аленков. За развитие несырьевых отраслей экономик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рост ре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будет отвечать еще один зампред Антон Зайцев.

– Мы устанавливаем такие показатели, чтобы быть лучшим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и одними из первых в России. Это амбициозные задачи, и все должны трудиться, чтобы их выполнить, – нацелил на серьезную работу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губернатор.

Так, в 2020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лжны построить 43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А в последующем на островах будут возводить по 500 тысяч и более «квадратов» ежегодно. Для сравнения: в 2018 году возвели 26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 2019-ом – 313 тысяч.

Планируется удвоить количество семей, которые улучшили свои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В 2020 году квартирный вопрос должен решиться для 10 тысяч островных семей.

По темпам снижения уровня бед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уже сегодня – в лидерах по стране. Благодаря новым видам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25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могли улучшить свое матери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уровень бедност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должен составить 3,5 процента – это рекордный показатель для России.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по-прежнему будет сосредоточено на медицинской сфере. К примеру, смертность от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х заболеваний должна снизиться с нынешних 400 случаев на 100 тысяч населения до 313 (в среднем по России – 450 случаев), а от новообразований – до 217 случаев.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й медицинский осмотр в 2020 году пройдут 260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Для сравнения – в этом году тех, кто проверил свое здоровье, было около 220 тысяч человек.

Масштабные задачи стоят и в экономике. Власти намерены увеличить долю занятых в малом и среднем бизнесе почти на 20 процентов. Есть планы по развитию энергетики, туризма и лес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отрасли.

Напомним,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идут масштабные изменения структур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но разделяется на два главных блока – администрацию губернатора 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обратной связи с жителями. Для этого запущено несколько каналов: горячая линия «1-300» и «Окна доверия» в поликлиниках, сервисы «Сахалин.онлайн» и «Бизнес.Сахалин.онлайн». По распоряжению главы области на обращения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оперативно даются официальные ответы.

Новая звезда 2020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елеканал НТК ЗВЕЗДА приступил к съемкам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вок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Новая Звезда 2020».

«Новая Звезда» – масштабное музыкальное состязание, в котором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85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лощадке конкурса соберутся самые талантливые и яркие исполнители со всех регионов.

Представлять на проекте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выпала честь певице, Борисенко Юлии Андреевне (Юлии Ленц).

Более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б участниках конкурса, можно найти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телеканала, в разделе «Программы» - «Новая Звезда 2020». Ссылка на страницу конкурса:

<https://tvzvezda.ru/schedule/programs/tags/?q=новая+звезда-2020>

Даты эфиров:

– первый тур конкурса - 31 декабря 2019 года.
– полуфиналы и финал конкурса - со 2 по 4 января 2020 года. В этот период пройдет масштаб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среди телезрителей.

За эти дни Вы услышите голоса всей России, а также окунётесь в атмосферу красочного масштабного шоу с новыми и авторскими песнями от лучших молодых исполнителей страны.

В конкурсе «Новая Звезда» побеждают два участника. Вручение призов пройдет в два этапа. 4 января пройдет награждение лучшего исполнителя по мнению жюри конкурса - знаменитых музыкальных экспертов. 7 января состоится оглашение имени и вручение приза лучшему исполнителю по мнению телезрителей всей страны и, в частности, Вашего региона.

Главная цель проекта «Новая Звезда» - найти и показать миру самых талантливых и ярких вокалистов из разных частей нашей страны и вместе с тем отразить всю красоту и многообразие разных ее уголк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강제동원 진상규명부터 제대로 해 '피해자성' 회복해야"

[박병수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강제동원 전문가 정혜경 박사



박병수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일제 실인원 200만명, 연인원으론 780만 강제동원 추산
죽창 들고 강제동원에 저항도...탄광·공사장이 가장 열악
정부 보상 2차례 실시, 액수 적고 못 받은 피해자도 많아
2012년 첫 대법 판결 뒤 6년 동안 정부 뒷짐만 지고 방관
정부 책임감 갖고 나서서 일본의 태도 변화 이끌어내야
문화상 '1+1+α'는 한-일 갈등 막자는 미봉책...해법 안돼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가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상 국회의장은 한·일 기업과 일반인의 자발적 기금으로 위로금을 주는 이른바 '1+1+알파(α)'안을 내놓고 추진 중이다. 과연 강제동원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 오랫동안 이 문제에 천착해온 정혜경(59)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연구위원을 만나 물었다.

정 연구위원은 "먼저 정부가 나서서 '당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진상 규명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중단된 피해 지원 접수도 재개해야 한다"며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일본도 '무조건 모른 척할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의 '1+1+알파'에 대해선 "역사 문제를 한-일 관계 측면에서만 보고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역대 정부가 모두 이렇게 미봉책으로 접근했으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인터뷰는 5일 한겨레신문사에서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 우선 용어부터 정리해보자. 강제동원, 강제징용, 강제노역이 있는데 어떤 게 정확한가?

"강제동원은 2004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용어다. 강제로 끌려가는 과정에서부터 강제노동을 하게 된 것까지 모든 피해를 포괄한 용어다. 징용은 끌려갔다는 뜻에서 많이 쓰였다. 해방 이후 여기에 '강제'라는 말이 붙었다. 강제노역은 범위가 노동현장으로 축소된 의미가 있다. 강제동원이 포괄적인 표현이다."

— 얼마나 끌려갔나?

"일제는 1938년 5월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후 인력·물자·자금 등 3가지를 동원한다. 인력은 연인원 780만 명이다. 군인·군속 27만 명, 노무자 753만 명이다. 위안부는 빠진 수치다. 연인원이니까 한 사람이 2~3번씩 간 것도 포함된다. 그럼 중복은 빼고 실인원은 몇명이나. 그건 정확히 확인된 게 없다. 학계에서는 200만명 정도로 추정한다."

— 어떤 방법으로 강제동원을 했나?

"기업이 모집하는 방식, 관에서 알선하는 방식, 징용령에 따른 징용, 이렇게 3가지 방식이 있었다. 초기에는 모집과 관 알선을 많이 했다. 그런데 갈수록 모집, 관 알선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남편이 갔는데 생활비 송금을 안 해주니 굶어 죽게 생겼다는니, 아들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진다느니, 그런 항의가 빈발했다. 동원하러 가면 사람들이 낫을 들고 죽창 들고 경찰하고 대치하는 일도 생겼다. 그래서 나중엔 일본 정부가 징용 대상을 확대한 뒤 징용하게 된다."

— 강제동원은 합법적인 것이었나?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1929년에 만든다. 일본은 1932년 비준했다. 스스로

비준한 국제협약도 어긴 것이다. 당시 끌려간 곳은 탄광, 군수공장, 공사장, 비행장, 항만, 제철소, 조선소 같은 곳이다. 남양군도와 만주엔 집단농장도 있었다. 농사를 지어 무수알코올 같은 원료를 군에 납품했다. 가장 많이 간 곳은 탄광이다."

— 이들의 노동조건은 어떤 상태였나?

"가장 열악한 곳이 탄광과 토목·건축 공사장이다. 원래 일본의 탄광은 죄수노동에서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노무관리가 거칠었다. 일반 공장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편이었다. 그렇지만 근로조건은 직종이나 장소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비교적 괜찮은 조건에서 일한 분들도 있다. 탄광도 오래된 곳은 갱도가 좁고 조건이 열악했다. 규슈엔 특히 군함도 같은 해저탄광도 있고 작업이 매우 힘들었다. 반면 사할린은 근대 채탄시설도 갖춰져 있을 정도로 비교적 양호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노동자의 권리는 허용이 안 되고 의무만 부여됐다는 점은 모두 같았다. 어느 자료에도 '퇴사'란 표현이 없다. '도주'만 있을 뿐이고, 어디서나 도주자에겐 가혹했다."

— 한-일 간 민족차별이 없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과거 조선인을 부렸던 경험이 있는 곳에서 차별이 심했고, 처음인 곳에선 차별이 적었다. 또 조선인 집단거주지가 가까운 곳에선 차별이 적은 편이었고, 그렇지 않은 곳에선 차별이 심했다."

—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무상 3억, 유상 2억달러를 받고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엔 인색했는데.

"1970년대에 처음 보상했는데 사망자·행불자 8500여명에게만 30만원씩 줬다. 노무현 정부 때 또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위로금을 다시 지급했는데, 사망자·행불자 2000만원, 부상자 300만~2000만원이었다. 생존자는 의료지원금으로 1년에 80만 원을 받는다. 모두 7만2000여 명이 6000억여 원을 받았다. 그런데 배제된 사람들이 있다. 일제가 외국으로만 끌고 간 게 아니다. 국내 동원도 있었다. 예컨대 충청도 사람이 제주도 군사시설 건설에 동원되는 식이다. 연인원 650만 명쯤 되는데, 모두 제외됐다. 피해 신청도 까다로웠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돈 안 받고 말겠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신청 기간도 2008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한 시적으로 운영하고 종료했다. 신청자가 급증해 재정 부담이 커지는 걸 우려해 소극 행정을 한 것이다. 강제동원 명부는 지금도 발굴되고 있다.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되지만 이제 신청할 수도 없다."

— 작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급전직하인데.

"원래 이 판결은 2012년 5월에 대법원에서 처음 난 것이다. 그것이 고법으로 내려갔다가 이번에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와 확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그동안 6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정부는 뭐 했냐'고 물어야 한다. 정부가 진즉 나서서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 정부가 어떻게 했어야 하나?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는 위안부 문제로 한-일이 대립할 때 '돈은 우리가 줄 테니 너희는 사과하라' 이렇게 당당히 나섰다. 그러니까 일본도 '아 우리도 뭔가 해야 하겠구나' 하고 압박감을 크게 느꼈다고 한다. 당시는 그렇게 우리가 일본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잃었다. 많은 분들이 일본은 왜 독일처럼 하지 않느냐고 한다. 그건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일도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다. 이스라엘은 1953년 '야드바셈'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거기에서 유대인 학살, 강제노동에 관한 것을 조사했다. 그렇게 해서 자료가 축적되니까 1990년대 미국 유대인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 정부까지 나서게

되고 그 결과 독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재단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게 독일의 '기억·책임·미래재단'이다. 대신 피해자들은 모두 소송을 취하였다. 이 재단에선 생존자에게 300만원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로 나치 피해 등에 대한 교육·문화사업을 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독일 국민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알게 된 것이다."

—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된 것인가?

"우리가 '피해자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피해자성엔 진상 규명 의지가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걸 알게 되면 우리 권리가 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재발 방지 의지를 공유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피해자성이 없었던 것 아닐 것이다. 애초엔 세월호 가족들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1945년 해방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단체를 만들고 청원도 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흐지부지됐다. 정부에서 가만히 있으라며 못 하게 한 것이다. 나서면 빨갱이로 몰아붙였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졌다. '우리 아버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하고 물어볼 데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동포들이 이분들을 모셔다가 소송을 하게 됐다. 처음부터 무슨 일을 겪었는지 관심을 가질 기회를 놓치고, 바로 소송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 단계로 가버린 것이다. 이걸 정부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 어디 갔는지 아세요' 하고 물으면 조사도 해주고 또 '당신은 이런 권리가 있다'고 알려주고, 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진상 규명도 하고 권리도 찾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까지 가는 것인데, 이게 다 엉켜버렸다."

—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자성 회복을 위해선 진상 규명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이걸 정부가 나서야 한다. 강제동원 자료는 대부분 가해자인 일본에 있다. 이들 자료를 받아와야 하는데, 그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됐다. 나중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로 바뀌어 2015년 12월 문 닫을 때까지 11년간 존속했지만, 피해자 신고 접수 처리 등 민원업무도 겸하는 바람에 충분한 진상 조사를 못했다. 위원회 같은 기구를 다시 가동해, 진상 규명도 하고 지원금 제도도 운영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일본도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구나. 문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겠구나'라며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할 수 있다. 지금 일본 정부는 기업에 보상금 지급을 막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기업에 아무 지침을 안 주는 것만으로도 일은 훨씬 잘 풀릴 수 있다."

— 지금 분위기에선 일본이 자료 제공에 협조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강제동원 관련 1차 자료는 대부분 일본이 생산한 자료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자료가 일본에만 있는 건 아니다. 당시 일본에 연합군 포로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영국에도 자료가 있다. 국제적십자사가 있는 스위스에도 있다. 또 만주에 주둔하던 관동군은 자료를 소각도 못 하고 땅에 묻고 도망갔는데, 그걸 얼마 전 중국 정부가 발굴했다. 시베리아 강제노역에 끌려갔던 조선인 병사 1만여 명 자료는 러시아에 있다. 또 개인적으로 이들 자료를 수집하고 추적한 분들도 있다. 이런 자료들부터 확보해가며 시작할 수 있다."

— 문화상 국회의장이 '1+1+알파'를 내놓았다. 한국과 일본 기업,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위로금을 주는 방안인데.

"이 제안에는 중요한 규정이 있다. 기금으로 돈을 받으면 다시는 권리 행사를 못 하는 것이다. 일본이 6월 한국 정부가 제안한 '1+1'안은 거부하면서, 문 의장은 환영하는 핵심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제안은 피해자 사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이 제안의 의도는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역사 문제를 외교정책의 관점에서만 본 것이다. 역대 정권이 이렇게 미봉책으로 접근했으니까 아직 해결을 못 보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말하면서도 실제 소송한 사람들의 의사도 묻지 않았다. 이렇게 시혜를 베풀 듯이 하면서 한-일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여기에 동의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한겨레신문)



일제시대 강제징용 문제 전문가 정혜경 박사가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사옥에서 직격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이모저모

(2면의 계속)

경연에는 심사위원들이 제작된 조형물들을 심사하고 조형물의 크기, 난이도, 품질, 조화성, 상상력들을 고려해 우수 조형물을 선정한다. 상은 3개로 정해졌지만 판정단의 심사로 특별 부문에서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상을 줄 예정이다.

Сахалинский зоопарк зовет островитян на лепку снежных фигур

Жителя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едлагают участие в веселом соревновании. Областной зооботанический парк приглашает горожан слепить снежную скульптуру 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любителей.

В пресс-центре учреждения рассказали, что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остязании скульпторов-самоучек может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Достаточно собрать свою команду и отправить заявку до 30 декабря 2019 года. Анкеты принимают на электронную почту info@sakhalinzoo.ru.

3 января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ждут на территории зоопарка в 13:45. Победителей наградят дипломами и призами. Кроме того, скульпторов угостят горячим чаем со сладостями.

Как уточн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команды не ограничено, как и возраст: на конкурсе ждут взрослых, школьников и детсадовцев. Скульптуры можно изготовить не только из снега, но и из льда. При этом горожане должны пользоваться своим инструментом: зоопарк не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вентарь в пользование.

Оценивать готовые работы будет конкурсная комис-

сия. Жюри выберет лучшие скульптуры по объему и сложности, качеству, эстетичности и фантазии. Предусмотрено три призовых места, но на свое усмотрение судьи могут наградить и других участников в отдельных номинациях.

2019년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 화폐 유통 법규 위반률 2.5 배 증가

사할린의 세관 전문가들은 사할린에서 통화(화폐 유통) 법규 위반이 증가 추세라고 지적했다.

2019년 신고기간 동안 사할린 주민들은 동일 범 죄로 102차례나 검거되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신고 해야 할 통화와 수입 장비의 수송 등이 원인이었다. 지난해 대비 이러한 위반 건수는 2.5배 증가했다. 2018년에는 세관 직원들이 행정 사건 40건을 적발했다. 규정에 따라 물품과 화폐를 해외로 밀반입하려는 사건을 적발해 벌금형을 내려 징수액은 총 1300만 루블리가 넘었다.

이외에도 올 1월부터 11월까지 세관국은 대외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법인들과 관련한 57건의 검사안을 구성한 가운데 사할린주의 기업인들이 61회 통화 거래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 102건이 이들의 행정 사건으로 입건되어 징수된 벌금은 총 4660만 루블리에 해당했다.

사할린 세관국의 홍보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업가들은 자주 건축 자재, 선박의 장비나 부품 또는 생활용품 운반 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약 공급의 상대는 주로 중국과 한국의 계약

당사자이다.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в 2019 году в 2,5 раза чаще нарушали валютно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Специалисты Сахалинской таможни отмечают рост числа нарушений валют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в регионе. За отчетный период 2019 года островитяне 102 раза попались на идентичных преступлениях — как правило, это провоз валюты и импорт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которое нуждается в декларировании.

В сравнении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количество нарушений выросло в 2,5 раза: в 2018-м сотрудники таможни инициировали 40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оизводств. Как правило, пойманные на нелегальных попытках провезти через границу валюту и товар платят штрафы. Общая сумма наложенных взысканий превысила 13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Кроме того, с января по ноябрь текущего года таможенники организовали 57 проверок в отношени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ся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спели нарушить акты законов об обороте валюты 61 раз. На них завели 102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дела, а общая сумма нарушений составила 46,6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Как уточн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Сахалинской таможни, бизнесмены чаще всего преступают закон при провозе стройматериалов, запчастей и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судов, а также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ов. Партнерами по таким контрактам поставки выступают в основном контрагенты из КНР и Южной Кореи.

(Сахалин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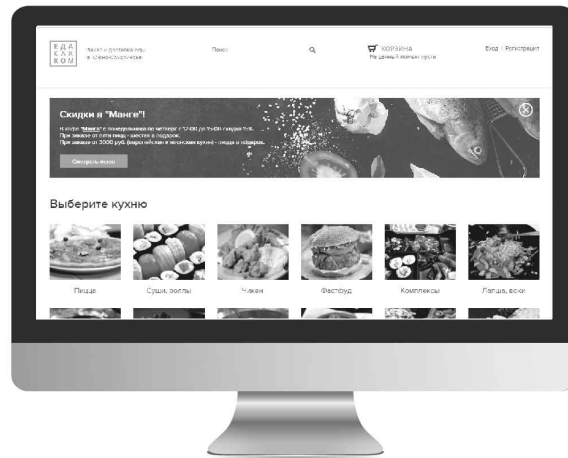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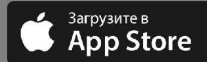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вь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